

三 寶 意 義

이 성 호 옮김

財團法人 國際道德協會 一貫道

1. 如何修行達到心印天心呢?

어떻게 수도해야만 내 마음이 확실하게 천심
곧 노모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在這三期末劫之秋，天道普傳，得道之人無計基數，但是到底我們得了什麼呢?

삼기말겁이라는 가을철 수원시기에 천도가 널리 전해져서, 도 받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깊은 뜻을 알고 수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簡單來說，就是得到了一本良心經，以真良心，正本性。勸化迷昧衆生，化惡爲善，化愚爲賢，達到己立立人已達達人。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밖에 없는 양심경을 찾아 얻어야 한다. 이 참 양심이 바른 내 본성이다.

어둡고 미매한 중생들을 교화하고 권해서 악인은 선인이 되게하고, 어리석은 이는 현인이 되게하여 내가 먼저 서고 남도 서게 해야 한다.

做到衆生的榜樣，人生做事，達到天理良心，日常生活做事，圓通達變，固執辦不通

중생들은 고쳐야 할 점을 조목조목 만들어 고쳐가야 한다. 사람이 일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천리양심을 얻어 도달하는 일이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은 원만하게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원통달변이란 나를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일하며니 통하지 않음이 없고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나를 위해 고집하면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修道不多談是非，陰惡揚善，在家孝順父母，在外以一點誠心，感化凡塵衆生，就能達到心印天心

수도란 필요없는 말이나 시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남의 나쁜 점은 숨겨주고 좋은 일은 칭찬해 주어야 한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께 효순해야 하고밖에 나가서는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미혹되어 있는 모든 중생을 감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상천의 노모님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

2. 何謂明心見性？

명심견성이란 무엇인가?

性在天堂之時本自然，清靜一塵不深。

내 본성이 상천에 있을 때는 본래 자연이었다. 청정해서 한점의 티끌에도 들리지 않았다.

육조운.... [菩提本無樹，明鏡亦非台，本來無一物，何處惹塵埃]

육조께서 이르기시를 “보리라는 나무는 본래 없고, 거울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곳에 티끌이 있겠는가?” 하였다.

卽然自性本是清靜自然，邦來明心，邦來見性呢？

즉 자성은 본래 청정한 자연인데 어찌 마음이 밝아지고 어찌 성품을 본다고 하겠는가?

蓋人降至東土，被氣稟及酒，色，財，氣，功名，利祿等等物慾所蒙蔽，以致心不明，心不明則性不能現，一切爲人處事，不能自然流本性。

대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몸에 가지고 있는 기쁨과 주. 색. 재. 기. 공명. 이익. 복록등 등의 물욕에 가려 마음이 밝지 못하다. 마음이 밝지 못하면 성품을 볼 수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자연히 나타나야할 본성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다.

大學所云.... [大學之道 在明明德] 其우 義就是首先要光明自己本性，這是明心見性的初步，要達到明心見性境界。

대학에 이르기를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데 있다.” 하였다. 그 뜻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본성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을 밝히고 성품을 보려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이 명심견성될 수 있는 경계에 도달하는 일이다.

就是大學所云.... [在親民，在止於至善] 邦麼自性自然流露，就是明心見性

대학에 이르기를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있다. 또 지극히 선한 곳에 머물러 있어야한다.” 하였다. 자성이 자연적으로 흘러 나타난 것이 명심견성이다.

要如何才能明心見性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명심전성할 수 있는가이다.

必須看空一切。如名譽，恩愛，地位，錢財等等，這些乃是身外之物，非我所有，於心中妄想物慾都沒有了。

반드시 모름지기 일체 사물을 공으로 보아야 한다. 명예나 은애, 지위, 돈, 재물등 등을 공으로 보아야 한다. 이몸 밖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심중에 있는 망상과 물욕을 깨끗이 없애야 한다.

達到空而不空，無而不無，有而非有，妙行無住，真空妙有境界，就是明心見性也。

마음을 비워 공으로 돌아가면 공 아닌데 이르게 된다.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하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묘법은 끝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지를 진공묘유라 하고 나아가서는 명심전성이라고 한다.

3. 何 謂 <金線>?

금선이란 무엇인가 ?

金者不變也，屬西方(西方庚辛金) 五行屬白，白有清清白白，即是自性在西方，

原是清清白白一塵不染。

금이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은 서방에 속하고(서방경신금) 오행으로는 백에 속한다. 백이란 맑고 깨끗하여 자성과 같으므로, 자성은 서방에 있다고 한다. 원래 맑고 깨끗하고 또 깨끗해서 한점 티끌에도 물들지 않는다.

線者相連也，心不離道，然而不識之修道子，以爲金線是有形的，跟繫某前賢大德就是金線。

선이란 서로 이러져 있는 것을 마리하는데 곧 마음이 도를 떠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수도자는 금선이 마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 어떤 덕이 큰 전인을 따라가야만 금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

不知金線是無形的(指良心) 非是有形之形式(指人)

이것은 금선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금선이란 무형적인 양심에 있는 것이다. 유형적인 형식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道相連才是金線道在心金線在, 道離心金線斷.

도와 도가 서로 이어진 것이 금선이다. 도가 마음에 있으면 금선도 있고 도가 마음을 떠나면 금선도 끊어진다.

雖道眞, 理眞, 天命眞(卽得道眞) 但如修道, 行道, 了道等等一切不能腳踏實地, 實行做到, 卽便明師同在也非金線.

비록 도가 진이고 이치도 진이고 천명도 진이라고 하더라도, 단 도를 닦고 도를 행하고 도를 마치는데 있어서 실지로 체험하지 않고 실지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도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으면, 명사이신 사존사모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선이 아니다.

總之, 天道自古以來師師相承, 無令斷絕, 有道者通, 無心者得, 卽明師已開竅者, 要去却內心之妄想.

종합해서 말하자면 천도는 자고로 조사와 조사가 이어서 내려왔으므로 단절됨이 없었다. 도가 있는 자는 통하고 무심으로 닦는 자는 얻는다.

즉 명사가 이미 현관유를 열어 주었으니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망상을 버리는 일이다.

行上天所秉之天性, 利益衆生大天宣化則金線相連, 也就是得道, 修道, 行道, 了道能一貫相連, 體系不亂, 一切眞, 統統眞, 則就是金線也.

상천에서 행한 천성을 꼭 잡고 나 외의 모든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고 하늘을 대신해서 중생을 교화하고 베풀어주면 금선은 서로 이러져 나간다. 도를 받고 도를 닦고 도를 행하고 도를 마치는데 있어 이관되게 서로 이어져서 체계가 어지럽지 않게 되면 일체가 진이요 모든 것이 진이된다. 이것이 곧 금선인것이다.

4. 三寶一一詳解?

삼보를 하나하나 자세히 물어보면?

師尊師母兩位老大人所傳之三寶心法，乃是千古不輕洩的秘寶，要不是逢三期應運，大道普傳，豈容易聞之。

사존. 사모 두분 노대인께서 전해주신 삼보심법은 천고에도 가볍게 누설하지 않았던 비밀의 보배다.

중요한 것은 삼기말겁의 운에 응해 대도가 세상에 널리 전하여지지 않았더라면어찌 쉽게 도를 전해 들을 수 있었겠는가?

三寶心法乃是諸法之王，普渡三曹，下根，中根，上根，上上根人齊渡。
삼보심법은 모든 법 가운데 왕이라 천사, 인간, 지옥의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근기가 낮은 하근기, 중류층의 중근기, 상류층의 상근기나 최상류층의 상상근기인 사람 모두를 다 같이 제도하게 된다.

故三寶心法，因各人佛緣根不同，領受自然各不相同。

그러므로 삼보심법은 각각 사람들의 불연에 따라서 근기가 다르므로 받아 들이는 것도 자연 서로 다르게 된다.

下根人視三寶只是保平安，消災解厄而已，若即若難，半信半疑。
하근기인이 삼보를 들으면 다만 자기 몸과 자기 가정의 편안함과 보호를 위해서 모든 재난이 소멸되고 액운이 풀어져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수행한다. 그러다가 소원대로 되지 않으면 곧 성심이 떠나게 되어 믿다가도 의심을 갖게 된다.

中根人視三寶可以脫劫避難，通天之信物真誠修行，
중근기인이 삼보를 들으면 말세에 탈겁피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하늘에서 주신 좋은 선물이라며 열심히 수행한다.

而上根人認爲五教妙義，千經萬典皆不出三寶，拳拳腹膺
상근기인이 삼보를 들으면 오교성인의 진리를 인정하고 모든 천경만전(진리와 법)이 삼보속에 있음을 가슴깊이 새기게 된다.

若是上上根得三寶，當體即悟，自性如來，親見無極天聖域，萬善俱足，功德

圓滿，心若太虛，

최상근기인이 삼보를 얻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여래자성을 깨닫게 되어 무극이천의 성역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선을 갖추고 공덕이 원만해져서 마음은 허공처럼 비게 된다.

圓融無碍，永明不味悲天憫人，做彌勒佛祖眷屬，隨緣渡人，

모든 사물에 원만하게 통해져서 거리낌이 없고 영구히 밝아서 어둡지 않고 상천의 자비로 증생을 가족처럼 여겨 삼천대사를 맡으신 미륵조사님의 권속이 되어서 인연따라 사람을 제도한다.

代天宣化，同助彌勒佛收圓，替師尊師母分擔責任，化五濁惡世爲人間淨土。

상천을 대신해서 증생을 교화하며 미륵부처님 수원대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존. 사모를 대신해서 책임을 분담하여 오락세계를 인간정토 세계가 되게 한다.

五教聖人留下經典，無非要後世的衆生，體悟心法之所在，但是由於末法衆生根性低劣，智巧好勝，只求多聞多知，好高騖遠

오교성인께서 남겨주신 경전에는 후세의 증생을 중히 하지 않음이 없어, 심법 있는 곳을 깨닫게 하였지만 말법증생들은 그 근성이 간사하고 비열하여 자기만을 위해 교묘한 꾀를 부리고 이기기를 좋아하며, 많이 듣고 많이 알기를 구하며, 높고 잘되기를 좋아하여 그칠줄을 모른다.

看經三寶心法捨本築末，而不悟真空妙有之心法，死在佛法經典裏而不自覺，故師尊師母爲救醒末法之衆生，

삼보심법을 가볍게 보고 근본을 버리고 끝만 좇으면 진공묘유의 심법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오교성인의 경전만으로는 말세 증생을 제도하리 수 없기에 사존. 사모께서 말세 증생을 깨우치고 구원하고 계신다.

利末留下任何經典，只傳不立文字的三寶心法，以渡末法衆生，故千法萬，千經萬典，皆不出三寶心法。

어느 경전에도 머무르지 않고 문자에도 집착하지 않는 삼보심법을 전해 말세 증생을 제도하는 것이다. 천만가지 법이나 천만가지 경전은 모두 삼보심법과 같은 무상묘법을 나오게 할 수 없다.

*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경전외에 따로 전하는 가르침 즉 교외별전이 있음을 설하셨다.

也適合下. 中. 上. 上上根人的修持的法門, 爲了能够更探一層了悟, 現就一祥解於后.

삼보심법은 하근기나 증근기나 상근기나 최상근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같이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법문이다.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보자. 자세한 것은 이후 하나하나 풀어 보기로 한다.

1) 玄關 (현관)

是人人本身自有的明月(自性), 因迷朱而不自知, 古今要藉明師一指才能領悟.

사람 사람은 본래 밝은 달과 같은 자성을 가지고 있다. 달이 구름에 덮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물욕과 망상으로 인해 미혹되어 스스로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다행스럽게도 명사 일지점을 받아서 깨닫게 되었다.

尋回迷朱的自己(即藉指見月), 但我們受明師一指, 不可只作一指之想, 不要停滯在此手指頭上.

미혹해서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려면 (달을 보라고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지적하듯이) 우리 도문의 명사 일지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점하는 손가락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달은 정체된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而忘却其所指的是自性, 不要只執着在玄關一點上.

달을 가리키기 위해 손가락을 썼 뿐인데 지점해준 자성을 망각하고 불필요한 현관 일점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

而忘却其所指的是先天本靈本性.

지점해준 선천 본령 본성은 달처럼 허공에 있음을 잊지 마라.

*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師尊師母用心良苦, 就是要我們藉點傳師之指而識得我們自身有個自性佛, 不必向外求.

사존. 사모께서 수고롭게 마음을 써서 점전사로 하여금 각자 자신에게 있는 자성불을 지점해서 얻어 알게 했으니 자기 몸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다.

此自性佛是無聲無臭, 無形無象, 不生不滅, 主宰人之一切, 子曰... [性在人, 性去人亡].

이 자성불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우리 몸 전체를 주재하고 있다.

그래서 공자님께서서는 “성이 있으면 사람도 있고, 성이 가면 사람도 곧 죽는다” 고 하셨다.

2) 口 訣 (구 결)

白楊弟子沾了彌勒慈尊鴻慈大愿의加被, 才能逢三期末劫, 有此機緣, 藉象(皇極心) 超氣(太極心), 入理(無極心), 卽身性合一籍假修真.

백양제자들은 미륵조사님의 크나큰 자비와 홍은, 그리고 대원을 입어서 삼기말겁 이때 좋은 인연으로 형상(몸)을 빌어 기를 초월하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 몸과 성품이 하나가 되고 가를 빌어 진을 닦는다.

眞不離假, 假不離眞, 做到眞假合一, 知行合一, 體用合, 能事來則應, 事去則空, 達到圓通之最高境界.

진은 가를 떠나지 않고 가 또한 진을 떠나지 않으니 진과 가가 합일되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체와 용이 합하여져서 능히 일이 오면 처리하고 일이 가면 고요한 공심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원만하게 통해서 되지 않는 일이 없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3) 合 同 (합 동)

子亥相義爲一個‘孩’字, 合同好比拘一嬰孩如赤子之心卽是無心.

자와 해가 서로 합쳐지면 어린아이 해자가 된다. 그래서 합동은 어린아이를 안은 것에 비유되는데 어린아이(신생아) 마음은 곧 무심이다.(무심 즉 도심, 도심 즉 노모님 마음이다)

能時時懷拘着一顆赤子心, 二六時中與赤子之心合, 與赤子之心同.

능히 어느때나 갓난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루 12시중 어느때라도 갓난아이 마음과 더불어 합하면 천진하고 거짓이없는 마음과 동일하게 된다.

即老子道德經所云... [見素拘樸] 拘個無極○, 能二六時中與這個○(素)合, 與這個○(樸)同,

즉 노자 도덕경에서 말한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본래의 마음”을 나타내 하나의 무극○을 안아 능히 하루종일 이와 같이 본래의 무극○에 합하려 하면 무극과 동일하게 된다.

隨緣渡衆, 衆善奉行, 諸惡莫作, 隱惡揚善, 時時迴光返照, 明體達用,

인연따라 증생을 제도하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어떤 악도 짓지 말아야 한다. 나쁜 일은 숨겨주고 좋은 일은 드러내주며 때때로 회광반조 하여야 하고, 근본을 밝게 해서 통달하고,

於相難相, 爲而無爲, 念而無念做到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將婆婆世界變成蓮化世界(即大同世界) 如此何只脫九九八十一劫.

형상속에 살면서도 상을 떠나야 하고, 하면서도 하지 않는 것 같이 하고, 생각하면서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해지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이 합하게 되면 장차 사바세계가 바뀌어서 연화세계(즉 대동세계)가 된다. 이같이 되면 어찌 구구팔십일겁을 벗어나지 못하겠는가?

實脫無數劫, 永離六道輪回, 超生了死, 證不生不滅之果.

수많은 겁살을 벗어나 육도윤회를 영원히 떠나리수 있으면 생을 초월하고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總而言之, 三寶心法, 是無相之實相, 真空妙有, 得道實無所得.

종합해서 말하면 삼보심법은상이 없는 실상이요 진공묘유라 도를 얻어도 실은얻은 바가 없는 것이다.

望白陽修道士, 功莫執我有所得, 若有所得只是三寶名相已非實相也, 這樣終不能超生了死.

바라건데 백양 수도인은 공을 세워 얻은 바가 있다고 집착하지 말라. 만약 얻은 바가 있다면 그 삼보란 상의 이름이지 실상이 아니니 삼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끝내 초생료사할 수 없다.

若真有所得, 一定要替天宣化, 化道衆生, 達到真空妙有無爲之境界.

만약 참으로 얻은 것이 있게 하려면 한결같이 하늘을 대신해서 증생을

교화하고 증생을 제도하여야만 진공묘유 무위의 경계에 도달하게 된다.

才有所得, 老子清靜經曰... 雖名得道, 實無所得, 爲化衆生, 名爲得道, 這就是三寶之真義.

이것이 얻은 바가 있는 것이다. 노자의 청정경에 이르기를 “비록 이름으로 도를 얻었다 할지라도 실지로 얻은 바는 없는 것이다.” 고 하였다.

증생을 위해 제도할 때만이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삼보의 참뜻이다.

三敎心法對照表 (삼교 성인 심법 대조표)

體爲性, 功夫在致中與致和.

자성을 본체로 하고 공부는 증용과 증화의 도에 이르는 데 있다.

儒 - 天命之謂性 유가에서는 하늘 에서 명한바 자 성을 근본으로 한다.	內	喜怒愛樂之未發謂之中 희노애락의 감정이 아 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한다. 中也者天下之大本也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근본이다.	致中天地爲焉 중에 이르면 천지가 제자리 에 선다.	率性之謂道- 上天 之載無聲無臭 성품을 거느리는 것을 도라고 말한 다. 상천의 실음(이치)은 소리도 냄새도 없다.
	外	發而皆中節僞之和 이미 희노애락이 발하 여 알맞게 절도가 있 음을 증화라 이른다. 和也者天下之達道也 화라는 것은 천하의 도에 이름을 말한다.	致和萬物育焉 화에 이르면 만 물이 길러진다.	

體爲如是, 功夫在住與降伏.

如是(본성)를 본체로 하고 공부는 여시(본성)에 머무름과 여시(如是)에 모든 마음을 항복
받음에 있다.

佛- 如是我聞 불교에서는 나는 이와같이 들었다. 은 (如如한 本性을 근본으로 한다)	체	云何應住 응당 어디에 머물러 야 하는가? 應如是住 응당 여시(본성)에 머물러야 한다.	禪門- 應無所住 선정의 문- 응당 머무른 바가 없이	受持四句偈- 茹茹 不動應作如是觀 4구계를 받아지녀 라. 여여한 성품
	用	云何降伏其心 응당 어디에서 그 마음을 항복 받아야 하는가? 應如是降伏其心 응당 여시에서 그 마음을 항복시켜야 한다.	觀門- 而生其心 관조의 문- 그 마음을 생한다. (도심)	부동한 것이니 응 당 여시(본성)로 지어보아라.

體爲門, 功夫在觀微與觀妙

모든 것의 기묘하니 문을 본체로 하고 공부는 觀微(竅 : 身上之妙處玄關竅)를 관조함과 더불어 奇妙한 作用(理致)을 봄에 있다.

	常無欲以觀其妙		
	상무로써 그 오묘	道可道非常道- 道	
	함을 보려 하고	도를 가히 도라고	
靜	無名天地之始	할 것 같으면 진	
	도라고 이름할 수	실한 도가 아니다.	同出異名- 歸根曰
道 - 衆生之門	없는 것을 천지의		靜復歸於嬰兒
도가에서는 모든	시작이라고 한다.		한 곳에서 나와 그
것의 기묘한 문			이름을 달리한다.
을 근본으로한다.	常有欲以觀其微(竅)		근원에 돌아감을
정			
	상유로써 그 요(현	上德不德- 德	이라이르고 영아에
	관규)를 보려 한다.	덕이라고 하는	복귀함을 목적으로
	有名萬物之母	것은 덕이 아니	한다.
	이름이 있는 것은	다.	
	만물의 어머니이다.		

本體論

終結論

目的論

= 끝 =

이 책의 저작권은 (재) 국제도덕협회(일관도)에 있으며, 무단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